

다도해 멋진 풍광 즐기며 함께 걸어요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감돌아 가을의 문턱을 넘어섰음을 느끼게 해주는 시기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상쾌하다. 가을빛이 막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때, 길가에 딱 좋은 계절이다.

전남에도 짙은 도심을 벗어나 호젓하게 걸으며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나들이길'이 꽤 있다. 정상을 향해 올라가지 말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숲과 길, 바다를 즐겨라. 가을을 가을답게 즐길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9월 걷기 좋은 곳으로 전남지역 ▲고흥군 마중길 봉래산 삼나무 편백숲길 ▲남도삼백리길 순천만 갈대길 ▲청산도 슬로길 4.5코스 ▲거문도 녹산등대 가는길 ▲관매도 마실길 등을 추천했다.

◇고흥 봉래산 삼나무 편백숲길=고흥 나로우주센터와 뒷산인 봉래산을 돌아 내려오는 길이다.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가득한 언덕길로, 빼곡하게 들어찬 나무숲은 맑은 시냇물과 봉래산 능선에 서면 한려수도도 품안에 안을 수 있다. 우주과학관~에네저수지~편백숲~무선국으로 이어지는

한국관광공사 추천 걷기여행길 10선... 전남 6곳 선정
고흥 봉래산 편백숲길·완도 명사갯길·청산도 슬로길
순천만 갈대길·거문도 녹산등대·진도군 관매도 마실길

11.8km지만 1구간 마지막과 3구간이 겹쳐져 실제 걷는 구간은 더 짧다.
 ◇순천만 갈대길=세계 5대 습지인 순천만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길이다. 해룡면 와운에서 출발, 순천만의 절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용산 전망대~순천만 자연생태공원~짚뚱어, 칠게가 서식하는 해변길이 아름다운 별랑 장산~화포로 이어지는 구간이 16km에 이른다.
 순천만과 더불어 낙안읍성, 선암사, 송광사 등 우수한 문화유산을 두 발로 만나볼 수 있도록 조성된 게 특징이다. 전체 코스는 11개로 223km에 달한다.
 ◇명사갯길=다도해 경관을 조망하며 명상을 함께 할 수 있는 '명품 녹색길'로, 명사십리해수욕장을 끼고 있다. 신지대교에서 시작, 명사십리해수욕장이 끝나는 울퉁불퉁한 10km 구간과 이후 석화교를 거쳐 내동마을로 이르는 5km 구간으로 나뉜다. 오전에 출발, 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 싱싱한 회와 매운탕을 곁들인 점심을 먹고 2구간을 걷는 게 지역민들이 알려주는 팁이다.
 ◇청산도 슬로길=청산도 슬로길은 제주 올레길과 더불어 '국가대표급 걷기코스'다. 슬로길은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걸음이 절로 느려진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으로, 11개 코스(42.195km)는 국제슬로시티연맹 세계 슬로길 1호로 공식 인증된 길이기도 하다.
 여기에 완도군은 최근 주변 마을 주민들의 삶과 전해내려오는 설화, 풍경 등 역사·문화·자연 자원을 활용해 스토리를 입혀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
 4코스(1.8km)는 제주도 올레길 7코스와 비교할만한 '낭길'로 시간이 없더라도 안 걸으면 후회하는 길로 꼽힌다. 바다와 접한 절벽길이 주는 짜릿함과 해상과 어귀를 나란히 하며 걷는 맛이 시원하다.
 5코스(5.54km)는 범바위를 활용, '호랑이조차 탐을 생명기운을 받는 생명바위길'로 알려져 있다. 산신이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열가지(심장생)를 청산도로 불렀는데 초대받지 않은 범이 왔다가 산신의 노여움을 받고 쫓겨나다 뒤쫓지 못하는 어리 범을 돌아보며 바위로 변했다는 설화를 듣다보면 걷는 지루함이 사라진다.
 ◇거문도 녹산등대 가는길=녹산등대는 거문도에서 가장 큰 서도의 북쪽 끄트머리에 위치한 무인등대로 아무도 찾지 않아도 손족도, 초도, 장도 등 다도해의 수많은 섬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비추고 있다. 녹문정~인어상이 인상적인 인어해양공원~녹산등대~이끼미 해수욕장~서도마을로 이어지는 구간(3km)은 편안함을 준다.
 ◇관매도 마실길=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숨은 보물섬이다. '관매팔경'을 이어주는 길이다. 마실길은 매화길, 해당화길, 봉선화길 등 여러 이름이 있지만, 워낙 짧고 험갈려 그 자체로 둘러보기보다는 마실길을 통해 관매팔경을 둘러보는 것이 좋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부안 일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지역을 둘러보고 있는 학생들. <부안군 제공>

서해안 지질명소 국가지질공원 첫 인증

고창 선운산·부안 채석강 등 12곳 4년간 4억원 지원

서해안 지질 명소 12곳이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다. 일대 생태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31일 고창·부안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고창과 부안 일대 520여ha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하고 4년간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첫 국가지질인증공원은 고창의 운곡습지·고인들굴·선운산 등 6곳과 부안의 직소폭포·채석강·모항 등 6곳을 합해 총 12곳이다.

부안 지질명소인 모항마을 주민들은 지질·갯벌생태체험 등을 적극적인 홍보해온 만큼 인증에 따른 반응이 더 컸다.

이들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게되면서 부안군을 비롯, 지자체들은 서해안권을 찾는 관광객·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광 활성화로 이어갈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교육과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가 인증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서해안권 지질공원 인증으로 생태관광이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도 추진하는 등 지역 문화유산유산을 활용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약·부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고창=박형진기자 phj@kwangju.co.kr

서남대 교수들 "설립자·이사들 사퇴하라"

교육부에 학교 정상화 요구

서남대 교수들이 지난 31일 교육부를 상대로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학교를 정상화해 학교 구성원과 지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서남대 설립자와 종전 이사들에 대해서도 "대학 정상화를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해달라"고 촉구했다. 총장과 보직 교수들에 대해서도 "폐교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육부는 2013년부터 임

시 이사를 파견해 서남대를 관리하고 있는데도, 모든 책임을 구성원에게 전가하면서 정상화를 지연시키고 대학을 폐쇄로 몰고 가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학교를 정상화해 학교 구성원과 지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서남대 설립자와 종전 이사들에 대해서도 "대학 정상화를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해달라"고 촉구했다. 총장과 보직 교수들에 대해서도 "폐교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육부는 2013년부터 임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선·전원주택지

- 담양 청평면 730㎡ 전원생활적합 1억1500
- 장성 북하면 장성호·백암사 인근 2803㎡ 동호인 주택적합 1억3천
- 장성 북하면 백양들개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 완도 악산면 특암리 해수욕장접 2481㎡ 별장적합 2억4천
- 곡성 옥곡읍 죽림리 대지 311㎡ 은행 2500 매도 5500
- 완도 악산면 해안가 대지 607㎡ 판선을 주택과 낚시배 1억 1500
-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 1877㎡ 요양주택·사찰도 적합 5300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배정동주택 화순 동면 대지 320㎡ 국유지 50평당도사용 주택 600평 3억3천 상등요
- 남구 사동 2층주택 대지 125㎡ 건평 124㎡ 임대 1억5천 월15 매도 2억1500
- 전원주택 담양 금성면 대지 495㎡ 주택 154㎡ 은행 1억3천 매도 2억7천
- 원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화 주택2층 2억3천

투자·매도·교환

- 무안 현경면 바닷가 전 4542㎡ 공시가 7천만 매도 8300만원
- 함평역 인근 대로점 주거지 3192㎡ 다용도 가능 2억3천
- 전원주택지 담양 금성면 대성리 14479㎡ 담양호 인근 1억7천
- 전원주택지 담양 금성면 대곡리 산 70487㎡ 11억 7천
- 공정적합 담양 봉산면 제월리 3501㎡ 1억1500만원

상가건물

- 화정동 다가구 8세대 전세 2억2천 1억5천전선 명과 교환 원
- 중흥동 모텔 대지 184㎡ 건평 652㎡ 은행 3억9천 매도 천만원
- 금매 북구 우산동 모텔 대지 408㎡ 객실 27개 971㎡ 6억7천
- 원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매도 5억6천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 유동 2층식당건물 대지 598㎡ 건평 334㎡ 건물 상태중음 9억6천

급매

- 남구 송하동 산 22556㎡ 대물담보용 최적 감정 2억5천, 매도 1억원
- 영암 산호읍 용당리 전 4628㎡ 공시가 2억 3천 매도 2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최고 투자처·파트

- 전남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산 3, 4, 5, 6번지
- 비금도 내에 있는 단독섬, 무인도
- 임야 14,010평, 보전 관리지역
- 육지에서 1km 지점
- 향후 개발가치 100억이상, 투자가치 최고
- 매 14억, 현금 4억 + 기타 부동산과 교환가
- 주인직매

H. 010-3605-5000

<h3>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h3>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000만원
<h3>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100만원 	<h3>수완지구 아파트 매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33평)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